

고전적 테러리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뉴 테러리즘 양상에 대한 연구

송재형*

목 차

- | | |
|----------|---------------|
| 1. 서론 | 2. 고전적 테러리즘 |
| 3. 뉴테러리즘 | 4. 대표적인 뉴테러리즘 |
| 5. 결론 | * 영문 초록 |

1. 서론

20세기를 규정하던 이념적 대립과 냉전의 상황이 붕괴되었다고 해도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인 환경하에 배태된 비전통적이고 비대칭적인 은갓 형태의 위협들은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특히 강자에게 대응하고자 하는 약자들의 저항수단으로의 비대칭성은 그들의 생존전략과 이기적 판단에 의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

* 한남대학교 학군단장, 육군 대령

다. 따라서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최종의 수단으로서 폭력에 호소할 것이며 테러는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다.

2001년의 9·11 테러는 전혀 새로운 테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집단적인 동시자살폭탄테러로서 미국 본토의 안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일대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9·11 테러를 종래부터 예견되어 왔던 생화학 테러와,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뉴테러리즘, 슈퍼테러리즘 또는 매크로 테러리즘이라 부르며, 9·11 테러를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인 이른바 ‘뉴테러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¹⁾

본고에서는 고전적 테러리즘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뉴 테러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2. 고전적 테러리즘

2.1 테러리즘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

공포를 연상시키는 테러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누구라도 그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대중들

1) 미국의 대 테러전문가들과 화생방 무기 전문가들은 '97. 9. 워싱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화생방 테러리즘에 대한 가상상황을 설정. 이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과거의 개념이나 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New Terrorism"이라 정의하였다. 미국 RAND 연구소에서 1999년 발간한 Countering The New Terrorism에서 New Terrorism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였음. 매크로 테러리즘은 기존의 테러리즘이,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해 엄청난 인명살상을 노리는 테러리즘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경향을 미 하버드대 테러 전문가인 제시카 스텐은 매크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의 일상(日常)은 보이지 않는 기체에 의해 통제받는 위축되고 불안한 생활이 영위될 수 밖에 없었다. 테러리스트들과 그 조직에 대해서 피아의 구분과 테러행위의 근절이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더욱 더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기간 중의 공포정치에서 그 기원을 찾는 테러는 1798년 사전적 의미로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으로 정의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Walter Laqueur, 1987: 11)

역사적으로 진행형인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에도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리즘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와 배경 그리고 집단과 국가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모호성에 의해 정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관한 협박을 통해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사회, 혹은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최진태, 1997: 20-30)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서구 학자들이 100여개 이상의 정의를 분석한 연구물에 의하면 공통적인 사항은 ①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이고 ② 폭력 혹은 폭력 사용에 대한 위협이다. ③ 최근의 현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양상이며 ④ 테러행위에 의해서 유발되는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이며 ⑤ 공격자나 조직들이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이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지 등을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전략적 성격을 살펴보면 테러는 매우 위협적(intimidatory)이며, 항상 목적 지향적(purposeful)이다. 또한 테러는 인간 개인의 마음속에서 행동의지가 형성(intentional)되며, 성격상 지속적인 행동(sustained activity)

을 유발한다.

테러리즘의 위협과 행동은 경고(warning)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계획과 실행의 측면에서 분리적(divisive)이고 비밀의 성격(clandestine)을 띠며, 고도로 비인간적인(impersonal)인 행동을 하게 된다.(최인섭, 1992)

2.2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

테러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많은 서구학자들은 테러의 기원을 프랑스 혁명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라는 정의에 입각하여 고전적 의미의 테러는 기원전부터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기원전 줄리우스 시저의 암살이 테러행위였으며 1~2세기경 팔레스타인 종교집단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살인과 방화등을 자행하였다.(Walter Laqueur : 12) 11~13세기 이슬람 과격종교단체들이 암살자(Assassins)를 고용하여 지사·칼리프·군사령관들의 살해와 방화 등이 모두 테러행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투쟁은 영웅적으로 묘사되고 미화되었으며 전사자들은 순교자로 추앙받기도 하였다. 중세기 특히 십자군 전쟁시에는 기독교인들과 모슬렘들이 이단자 및 비신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종교테러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종교적 목적달성과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뿌리 깊은 갈등의 소산은 지금도 중동의 정치적 혼란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보복적 역사의 유물이 16~17세기에는 폭군시해론으로, 18세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로 연결되었다.

2.3 테러리즘의 시대적 변화 양상

2.3.1 1960년대 이전의 양상

현대적인 의미의 테러의 시조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 혁명 시기로서 19세기의 폐쇄사회적인 무정부시대에서 비롯된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테러를 선택하였으며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인민주의자)」들은 1881년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황태자도 살해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20세기 테러는 사용 목적과 실행방식이 더욱 조직적이고 다양화되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관제 테러를 채택하였다. 극우와 극좌의 양대 진영에서 각자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민족자결, 민족해방전쟁 등의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며 테러리즘의 초점이 정치운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제국령에 있던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지만, 영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인 테러조직 「이루군단(團)」²⁾이 영국 지배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테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세계의 이목을 팔레스타인으로 집중시켜 국제연합의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한 신생국들 중 특히

2) 이루군단(團)은 1943년부터 1948년까지 반영국 테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테러조직으로 테러리즘의 성공적인 예로서 전세계의 반식민지주의와 식민지주의 이후 테러조직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이들은 소수의 전투원과 약간의 무기로 테러활동을 실천하면서 무력에 의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영국지배력 약화를 위해 영국의 이민국사무소나 영국군사령부 등 영국의 압제를 상징하는 정부시설을 폭파하였다.

알제리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 과 키로프스의 「키로프스 전사 민족기구(EOKA)」 등이 반식민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반식민지 투쟁에 대한 테러활동은 홍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의 투쟁지역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폭력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테러리즘이 지역분쟁을 국제문제로 확산시키는 유효한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2.3.2 1960년대 양상

1960년대 후반기부터 테러의 성격과 규모·방법면에서 종래와 달리 무차별적인 대량학살, 비행기 납치 등 국제화·대형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인 ‘국제 테러리즘’의 태동은 이 시기부터라 할 수 있다.

테러가 국제화되고 대형화된 것은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중동은 국제무대에서 「화약고」가 되었다.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아랍제국들은 군사력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유일한 대안으로서 테러리즘을 선택하였다. 특히 1968년 7월 22일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이 중요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국영 엘 알(EL AL)항공기를 공중 납치하였다. 그들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서 항공기 납치를 택하였으며 이 사건이 팔레스타인에 의한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었다. 1968년과 1972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 항공기 납치사건은 1968년도에 35건, 1969년도 한 해 동안에 무려 85건이나 발생되었으며 주당 약 2건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국제적인 관심과 여론을 집

증시킬수 있었으며 국제 테러리즘의 효과성을 널리 인식시켰다.

2.3.3 1970년대 양상

1970년대는 테러의 10년³⁾이라 불리는 시기로서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었다. 특히 정치의식 변화와 반미, 반부격차, 개도국 경제문제 등에 반감을 나타내는 좌익 테러리즘이 민족해방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국제테러리즘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70년대에 활동했던 주요 좌익 테러조직들은 독일적군(RAF) 조직과 일본 적군파, 이태리의 붉은여단 등으로 대표되는 좌익 아나키스트계의 무정부 조직이 탄생하였다.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대회시에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급습한 검은 9월단 사건은 68년 7월 이스라엘 국영 항공기 납치사건과 함께 국제 테러리즘을 탄생시킨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다. PLO는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 국제 테러리즘의 공포를 전파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세계의 문제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60년대 유행병처럼 번지던 항공기 납치 테러가 납치한 항공기를 폭파하는 수법으로 변화되었으며,⁴⁾ 테러조직간에도 상호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5월의 로드 공항 학살사건, 1975년 12월 오스트리아 빈의 석유수출기구(OPEC) 회의장 점검사건 등은 PFLP와 일본 적군, 서독의 바다 마인호프 조직 등이 유기적인 합동작전에 의해서 자행한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

3) Robert A. Friedlander, "The Crime of kidnapping of Diplomatic Persone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edited by M. Cherif Bassiouni(1986), Vol.I. p.486에서 1970년대는 테러의 10년, 1980년대는 위험한 10년이라 하였음.

4) 1960 ~ 1969년까지 항공기납치 공중폭파 사건수는 15건에 희생자는 286명이었으나 1970 ~ 1979년에는 43건으로 약 35%가 증가하였으며 희생자도 44%나 증가한 650명이 발생하였다.

테러리즘이 점차 국제화되어 가면서 미국, 서독, 이스라엘 등은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76년을 고비로 대응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델타포스, 독일의 GSG-9, 영국 SAS 등 대테러부대가 창설되었다. 또한 테러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INTERATE(International Terrorism Attributes of Terrorist Events)로 지칭되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양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2.3.4 1980년대 양상

1980년대 테러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대상이 주로 사람이며 무차별적이고 대형화 되었다는 것이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12년 동안 총 1,715건의 테러리즘이 발생하여 4,310명이 사망하고 8,152명이 부상하였는데 1981-1993년까지의 기간에는 8,151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망자는 4,861명이고 부상자가 14,752명으로 6,6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83: 115)

특히 테러 수범면에서는 1983년 4월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 차량폭탄 공격으로 첫선을 보인 폭탄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가미가제식의 자살형 차량폭탄테러가 유행병처럼 여러 대륙으로 번져갔다. 1983년 8월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기를 소련의 전투기가 격추한 사건과 1983년 10월 베이루트 미 해병대 사령부 및 프랑스 차량폭탄 공격, 1993년 2월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 폭발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의 피해가 대형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① 먼저 과학의 발달로 무기체계가 고성능화 되어 파괴력이 강화되었으며 ② 테러리스트들이 대중이 집결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③ 국가지원 테러리즘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테러지원국가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중동 5개국과 쿠바,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테러지원국가들은 테러리스트를 은닉하거나 무기, 폭탄, 시설 등은 물론 자금원조, 무기취급 및 게릴라 훈련, 군수품 공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2: 12)

2.3.5 1990년대 양상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구조의 종식으로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국제질서는 재편되었다. 즉 구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성행하던 이데올로기에 의한 좌익 테러리즘은 쇠퇴하였다. 80년대까지의 일본 적군파와 같은 극좌테러조직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합법 비즈니스에 관계하고 있으며 극좌 네트워크가 국제범죄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재 테러리즘계의 실정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종족, 종교, 문화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각종 분쟁의 발생과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된 초국가적 위협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구에서 활동하던 좌익 테러리즘 조직들인 독일 적군파와 이탈리아 붉은 여단 등은 1980년대 후반 대대적인 소탕작전으로 타격을 입어 활동이 위축되고 별다른 테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국가 통제력이 약화된 구소련, 동구, 중국 등 사회주의 전역에서도 테러가 빈발하면서 지역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다. 좌익 테러리즘의 퇴조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에 의한 테러리즘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탈냉전시대에도 냉전시대의 민

족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되어 있던 각 민족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더욱 표면화되어 인도, 터키, 스리랑카 등지에서 민족주의와 분리주의에 의한 테러리즘이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강대국으로부터 군사·경제적인 지원이 감소하고 기존 정부의 정권기반이 약화되자 남미·동남아·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각 정파간에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테러의 주체와 대상 목적 등이 불분명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촌이 세계화되고 테러리즘도 국제테러리즘의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공격대상으로서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국가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현실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탈 국가주의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 테러는 1995년 움진리교의 독가스 테러와 미국에서 발생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테러,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동시다발 폭탄테러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기부터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미군기지와 미대사관에 대한 자살폭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미 본토의 안전성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린 것이었으며⁵⁾ 국가와 테러집단간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예고하였다.

5) 미국본토가 공격을 받거나 공격위협에 노출된 가장 최근의 일은 영국이 1814년 워싱턴을 불태운 것이다. 9·11 테러 이전에 미국 본토가 대규모로 공격을 받은 것은 1814년이 처음이며 유일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은 종결선언 후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3. 뉴테러리즘

테러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오고 있다. 1990년대의 테러리즘과 새천년 시작의 테러리즘은 앞에서 분석되었던 1990년대 이전의 테러리즘의 모습과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테러 주체가 좌파단체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단체로 바뀌었고 테러의 목적이 이데올로기에서 종교적·민족적 갈등에 의한 맹목적이고 잔인한 파괴주의로 변화되었다. 특히 2001년 소위 9·11 테러는 자살폭탄공격의 변형된 형태로서 대량살상을 시도하였으며 대형화·국제화 되었고 생물학 테러까지 병행하여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의 공포를 전세계에 확산시켰다.

3.1 뉴 테러리즘의 발생 배경

마이클 화인(Micheal Whine, 2002:2)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을 분석해보면 새로운 극우 테러리즘과 종교적인 테러리즘의 두가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우익에 비해 새로운 우익은 표면적으로는 거의 식별되지 않으며 대부분 미국의 극우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다. 종교적인 테러리즘은 메시아 시대에 오직 믿음에 의하여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강요 받으며 그들의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이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모든 위협을 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과학화·정보화 시대의 테러리즘은 더욱 네트워크·다양화되고 세계화 그리고 높은 치명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무제한적인 활용성과 가공할 파괴력과 영향력은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테러리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다수의 집단과는 다른 원칙과 목표들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집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배경을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보기로 한다. (Jose Vegar, 1998:2)

① 정교일치를 지상목표로 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철저한 종교 지상주의자들로 이슬람만을 규범으로 하여 다른 세속적인 것을 모두 배격한다는 철저한 이슬람 복고운동이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나 이슬람의 이익에 반대하는 외세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한다. 따라서 그들이 말소시켜야만 하는 존재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을 절대악으로 간주하여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동시다발테러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문명의 충돌⁶⁾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참사 후에 헌팅턴은 “이번 테러는 문명 사회에 대한 야만인의 비열한 공격이며, 광기어린 집단의 범죄일 뿐, 결코 문명간 충돌로 볼 수 없다. 문명간 충돌이 정말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슬람 국가와 미국이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디 자이트』 지와의 회견에서 분명히 말했으며, (신길순, 2001:91-92) 실제로 우리는 문명간의 분할선을 명확히 규정할 수도 없으며, 문명의 충돌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② 컬트집단과 종교적인 파벌들의 사회변혁과 반문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정종교 또는 특정의식에 열광한 자들을 컬트집단이

6) 미국의 시사잡지 Foreign Affairs에 발표한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1993년 논문 “문명의 충돌”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서로 다른 문명을 가진 두 집단간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냉전후 세계의 분쟁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아니라 문명 충돌의 양상이라는 주장으로 전세계 언론과 학계에 찬반을 불러 일으켰다.

라 한다. 이 컬트 교단은 명확한 체계도 없는 종교로서 신비적인 신의 계시 등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일반상식을 훨씬 벗어난 테러를 행한다. 사교적 광신자 집단들에 의한 테러사례는 1994년 2월 유대인 과격파 「카하」의 활동가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과 1995년 3월 도쿄중심부의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5,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다.

③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반정부 단체들이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목표는 선동적이고 인종차별적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복수의 혼합물에 기초된 불가사의할 정도로 신비적이며 대중주의 형태와 격렬한 반정부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정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며 다른 관중들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들을 위해 테러를 실행한다고 호프만은 설명하고 있다. 이 조직의 활동사례는 1995년 4월 극우파 성향의 민간무장조직인 티모시 맥베이가 이끄는 「밀리시아」가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연방정부청사 건물을 폭파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광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실행되는 테러는 예측과 대책 수립이 매우 곤란하며 종래의 테러보다도 그 위험성이 훨씬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2 뉴 테러리즘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

세계가 새로운 '초대형 테러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테러2000' 연구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와같은 예언적 확신이 바로 2001년도 9·11테러로 현실화되었다. 9·11테러가 종래의 테러와 비교할 때 명확히 구별되는 점은 대담성·기습성·무차별성, 세계 자유질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활용하면서도 재래식 세포조직망을 활용하는 혼합전법을 사용하는 것 등(한용섭, 2001:44)을 핵심적인 요소로 추출해 내었다.

이렇게 새로운 테러의 출현을 예고했던 징후들과, 과거의 테러와는 다른 유형과 방식의 테러 양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의 출현을 예고한 마이클 화인(Micheal Whine)과 RAND 연구소에서 작성한 Countering The New Terrorism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① 뉴테러리즘은 대부분 관련 국내에서 실행되었다.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 행위는 모든 테러 공격에서 오직 10%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내에서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폭파 사건은(미국의 우익주의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 1995년 오클라호마시의 폭파사건 전에도 1990년의 2,098건에서 1994년에는 3,199건으로 52%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제 테러 공격은 437건에서 332건으로 24%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4년 동안에도 174건으로 46%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테러의 요구조건이 없고, 공격 주체가 불명확하여 추적·색출·근절이 곤란하다. 뉴 테러리즘에서는 자신과 비호세력의 안전과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의 제시도 없으며 자신들의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③ 테러를 전쟁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무차별적 공격으로 최대의 피해발생을 기도한다. 과거의 테러는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선전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선택하였으며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이 강했다. 뉴 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로서 자행되었다. 전쟁에서는 적의 궤멸이 목적이므로,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타격을 가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이는 1990년대 중반 빈 라

덴이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이다.

④ 뉴테러리즘이 전산망적이고 느슨한 중앙통제로 이루어진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가 곤란하다.

⑤ 테러의 긴박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시간이 부족하다. 금번 9·11 테러에서 보듯이 수년에 걸쳐 항공기 조종술을 습득토록 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40~50분만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테러에 대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⑥ 현지 획득장비를 테러에 적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 대비가 매우 어렵다. 우리 생활 주변의 주유소, 가스 저장소, 차량 등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그 지배권만 탈취되면 모두 현장에서 테러장비가 될 수 있다.

⑦ 새로운 개념의 대량살상 무기(화생방)와 사이버공간 사용으로,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대처 방식이 필요하다.

⑧ 정보화시대 언론매체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테러리즘의 공포가 확산된다. 현대는 "개방화 시대"로 언론에 대한 상황 통제가 어려운 '지구촌 통신(Global Communication)' 시대이다. 9·11 테러에서는 CNN이 24시간 상황을 보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전 방송국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보도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공포가 최대로 확산되었다. 특히 TV는 테러사건 현장의 생생한 동영상 화면을 방영하여, 절실한 공포감을 유발한 바, 테러리스트들의 의도 달성에 일조한 부정적 결과가 되었다.

⑨ 사건의 대형화로 사후조치시에 정치적 부담이 증대된다. 종전의 테러는 대부분 현장처리가 가능하였으나, 뉴 테러리즘에서는 사건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대형화됨에 따라, 최고 통치자의 결심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⑩ 테러조직원들을 이민 2세, 중산층·인텔리들로 충원하여 테러

가 보다 지능화 되고 있으며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은 초보자들이며 파트타임으로 활동한다.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조직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본부도 없으며 스스로 자금 조달도 하고 취약한 목표를 공격한다.

① 종교에 의해 추진되는 테러리즘은 자신들을 어떠한 경계에도 한정하지 않고 극심한 치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종교가 개입될 때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된다고 부루스 호프만이 말한 것처럼,⁷⁾ 종교적 열광이 대량살상 공격을 수행할 의지를 조성해 주고, 테러조직들은 재앙의 극대화를 노린다.

이상과 같이 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대처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더불어 철저한 대응 전략 수립과 단호한 대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3 고전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의 비교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흔히 1968년을 기준으로 고전적 테러리즘과 현대 테러리즘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뉴 테러리즘의 징후가 산견되고 있다. 고전적인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의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테러리즘의 특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고전적 테러리즘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과 배경속에서 발생하였으나, 뉴 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적의 궤멸을 위해 최대의 인적·물적 피해를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② 고전적 테러리즘은 테러의 주체와 이유가 명확하고 관제테러

7) Bruce Hoffman 교수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테러리즘 및 정치 폭력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테러리즘의 내막(Inside Terrorism)』의 저자임.

가 많았다. 뉴 테러리즘은 ‘얼굴 없는 테러’이며 테러의 이유가 서방에 대한 반감, 지역 패권에 반대 등 추상적인 이유로 테러를 실행하고 있다.

③ 고전적 테러리즘의 전술적 목표는 공포속에서 적의 사기를 완전히 몰락시키거나 공포, 두려움을 유포시키기 위한 테러행위였다. 뉴 테러리즘은 복합적인 수단을 적용한 극적인 연출로 테러의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목적 달성을 도모하였다.

④ 테러리즘이 의도하고 있는 테러의 대상 내지 목표물의 범위가 고전적 테러리즘은 폭력의 대상자가 바로 희생자이기 때문에 희생자의 규모가 명확하게 한정된다. 뉴 테러리즘은 보다 많은 희생자와 공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행위를 감행하여 피해자와 희생자의 범위를 전세계적으로 규정한다.

⑤ 고전적 테러리즘이 군사상의 필요(military necessity)에 의해 테러의 명분을 찾았다면 뉴 테러리즘은 심리상의 필요(psychological necessity), 종교상의 필요(religious necessity)와 종족상의 필요(ethnic necessity)에 의해 정당화의 명분을 찾고 있다.

⑥ 고전적 테러리즘이 암살, 인질, 납치 등의 개인 및 소집단에 대한 테러였으나 뉴 테러리즘은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요구한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는 무형의 폭력으로 개인적인 증오 및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4. 대표적인 뉴 테러리즘

대표적인 뉴 테러리즘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 생화학 테

러리즘, 핵 테러리즘 등 4가지의 유형에 한정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4.1 자살폭탄 테러리즘(Suicide Bomber Terrorism)

자살폭탄테러의 공포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예루살렘, 뉴욕, 자카르타, 이스라엘 가자지구, 체첸의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자살폭탄테러는 때와 장소,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제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단체들의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도 하다.

4.1.1 개념

자살폭탄공격이란 공격행위 자체가 가해자의 죽음에 의존하는 작전방법으로서 선정된 목표가 폭발할 때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실행되는 폭력적인 공격으로 정의된다. 자살공격은 그것을 신성한 전쟁과 신성한 명령으로 여기는 종교적·민족주의적 열광자들의 단체에서 매우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 종교 원리주의적인 테러단체로부터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자살폭탄테러는 종교적 성격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요인이 복합되어 행동화되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반군조직,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LTTE)나 체첸반군의 자폭테러의 동기는 종교적 신념에 민족주의가 혼재한 성격을 나타낸다.

일단 자살 공격을 실행하도록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작전은 대개 여섯 개의 개별작전의 형태로 진행된다. ① 목표선택 → ② 정보수집 → ③ 모집 → ④ 훈련(수련) → ⑤ 폭발물 준비 → ⑥ 목표지역으로 이동(수송)의 6단계를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폭발작전이 실행된

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은 다만 기교적인 폭탄의 하나에 불과하며, 동시에 폭발물을 올바른 장소에 놓고 올바른 시간대에 폭발시키는 폭발물의 운반자이기도 하다. 자살폭탄 테러범은 무명의 존재에서 자유를 위해 그들의 영혼을 희생하여 순교하며 한 순간에 영웅이 되어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4.1.2 성향 분석(Ehuel Sprinzak, 2001 : 1)

자살테러는 이미 18세기에 유럽의 식민지 억압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수마트라·필리핀 등지의 이슬람 공동체들이 사용하였다.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죽음을 자살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신의 영광을 위한 순교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세계 분쟁지역 중에서 자살폭탄테러를 공격전술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중동을 비롯, 러시아·스리랑카·스페인 등이 있으며 대부분 분리독립을 외치는 반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1983년 10월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중인 미군과 프랑스군의 막사를 파괴한 두 사건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서 폭발물을 터트린 자살폭탄 테러였다. 이를 효시로 1980년대 중반부터 개시된 헤즈볼라의 작전들과 1984 - 1996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방해를 목표로 한 하마스의 버스 폭파, 1995 - 1999년 터키에 대한 쿠르디스탄 노동당(PKK)의 투쟁을 포함하여 자살폭탄테러는 중대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스리랑카 타밀 일당의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는 1991년 인도의 라지브 간디 총리와 1993년 스리랑카의 라나싱게 프레마다사 대통령을 암살했으며 스리랑카의 현대통령인 찬드리카 쿠마라통가는 한쪽 눈을 잃기도 했다.

최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하는 자살폭탄테러에는 여성들도 테러에 가담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조직에서도 여성 자살공격부대를 창

선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아샤르크 알-아우사트지는 2003년 3월 12일자로 보도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발생한 자살폭탄테러 성향을 개관하면

① 자살폭탄 테러리즘은 198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 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② 관련단체들 중 LTTE를 제외한 나머지 - 헤즈볼라 · 아말 · 하마스 · KKK ·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이슬람 지하드 · 알 카에다 · 시아파와 수니파 등 - 대부분이 이슬람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다. ③ 자살폭탄 테러리즘에 관련된 조직의 대부분이 신앙을 고집하고 있지만 공격의 목적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다. ④ PPK, LTTE, PPS 단체들은 자살공격에 여성들을 참여시켰다. 특히 LTTE 같은 단체들은 장기전의 영향으로 남성요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어 여성요원들을 남성요원들과 똑같이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4.1.3 자살폭탄 테러범은 누구인가? : 샤흐드(Shahid)

이스라엘을 목표로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하는 대표적인 단체 하마스(hamas)는 자신들은 자살자가 아닌 샤흐드(Shahid), 즉 지하드나 신성한 전쟁인 종교적인 명령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쓰러진 순교자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살폭탄 테러범을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정신병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들 샤흐드(Shahid)들은 주로 18세부터 27세의 젊은이들이며 미혼으로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가난한 가정 출신들이다. 대부분은 하마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가자의 서안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종교 원리주의적 교육기관의 열렬한 학생들로서 이스라엘에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다. .

자살공격은 샤흐드와 그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양의 보상을 제공

해 준다. 샤히드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의 배경에서 자살공격 후에는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며 명예와 찬사는 물론 수천 달러의 금전적인 보수도 지급 받는다.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이슬람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죄들이 사해될 것이고 천국에 자리가 예약될 것이다.” 라고 했다.

개인적으로도 샤히드는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알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천국에서 그를 섬기게 되는 72명의 젊은 처녀들의 사랑스런 애정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 중 70여명에게 천국에서 살도록 약속해주는 특권을 부여 받는다.

이 샤히드들이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주된 이유는 보복적 급진주의와 종교적 원리주의가 결합되어 적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소원 때문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스승으로부터 오랫동안의 관찰과정을 거친 후에 선발될 수 있으며, 선발된 이후에는 긴 훈련에 참가하여, 굳은 의지와 냉정한 정신력을 보유한 자만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자살공격을 감행할 의지와 실력을 갖추게 되고 세뇌당한 시점에서, 그들은 유서를 쓰고, 특별한 기도를 하는 선전용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협력자들과 함께 목표지점으로 이동(운전)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마치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의 출정의식⁸⁾과 비슷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공격행위에 들어간다. 이들은 손수 만든 폭발물이나 3~15kg의 TNT등을 차량 또는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가방 속, 군용조끼 안 같은 곳에 숨겨서 이동하게 된다.

8) 가미가제 승무원들은 출격이 결정될 때까지 음식, 술, 여인까지도 요청하면 제공되고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쓴다. 출격 전날 축연이 열리고 천황에 대한 맹세와 견적 필살의 건배를 든다. 출격 전 새군복을 입고 가족들에게 발송할 소지품 속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어 포장한다. 단도와 머리띠를 받아 머리에 두른 후 물잔(생사를 가릴 때 술 대신 물을 술잔에 따라 나누어 마시는 것) 건배의식 후 함정에 타기 전에 신사 앞에서 절을 올린다. 기지근무 전 장병이 무운장구를 비는 전송을 하며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대원들은 경례하면서 출정을 한다.

4.1.4 특성(강점)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① 2003. 1. 5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가에서 저녁 퇴근시간에 두 차례의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최소 23명 사망, 100여명이 부상.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자신들의 행위라 주장. ② 2003. 5. 12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내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3건의 연쇄 자살 차량폭탄테러가 발생, 자살폭탄 테러범 9명을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 194명 부상. 이 사건은 콜린 미국무장관 방문 직전 미국인 및 외국인을 겨냥한 연쇄 자살폭탄테러임. ③ 2003. 5. 14 체첸 공화국 북부 일리쉬칸 유르트 마을의 이슬람 사원에서 1만 5,000여명이 이슬람 명절을 기념해 예배를 보던 중 2명의 여성이 몸에 두르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으며 30명 이상이 사망, 150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보안당국은 예배에 참석한 아흐마드 카디로프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자살폭탄 테러의 특성(강점)은 ①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작전이며 ② 집단살상과 대량피해를 보장한다. ③ 테러조직의 중요정보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가능하며 ④ 대중과 언론에 막대한 충격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⑤ 작전수행 순간에 임무수행은 성공이 보장되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1.5 대응방안

어떻게 하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할 수 있을까? 미래에 자살테러리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대량살상 무기나 9·11테러와 같은 극적인 전술을 결합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테러공격의 살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의 사기에 충격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장차 이러한 테러리즘의 가공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국가간에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살폭탄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는 모든 국가들은 정보력, 작전적인 대 테러대책과 방어적인 반 테러 대책을 통해 공격을 저지하고 차단해야 하며 심리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력은 모든 테러를 막는 시발점이며 자살폭탄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방어적 수단인 반테러 대책은 잠재적인 목표지역에 대한 물질적인 보호를 위한 또 다른 필수적인 전략이다. 물질적인 보호는 테러리스트가 목표지역을 공격할 때 자살폭탄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잠재적인 자살폭탄 공격에 대한 방해물로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테러의 주된 희생자가 일반대중인 민간인을 감안할 때 무고한 일반 대중들의 희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테러대책의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2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

21세기를 정보화·과학화 시대라 부른다. 많은 전문가들은 테러가 넷전쟁(Net War)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와 미디어가 테러리스트들의 핵심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월터 라퀘어(Walter Laqueur)는 만약 뉴 테러리즘이 그들의 주관심을 정보전에 집중한다면, 그 파괴적인 힘은 과거에 행해졌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생물학·화학 무기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예고하였다.(Walter Laqueur, 1996: 35)

4.2.1 개념

정보의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환경적·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이나 일탈 행위,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쉽게 사이버 테러리즘(Cyber Terrorism)이나 사이버 전(Cyber Warfare)⁹⁾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테러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전산망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며(이진수, 2000:5) 디지털 테러라고도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해킹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시켜 특정국의 통신체계, 전산체계, 핵통제체계, 국가정보체계 등 유용한 정보를 유실 왜곡시키거나 마비시켜, 사회전체가 위기와 혼란에 빠지도록 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만일 테러리스트의 조작으로 인해 특정국의 핵발전소 통제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금융업무가 마비된다면, 도시가스 통제시스템에 침투하여 도시 전체가 화염에 불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사이버 공격이 대량살상 무기와 동등한 개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2.2 수단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군의 진보된 정보전’(Advanced

9) 사이버전은 적의 정보체계 및 컴퓨터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무형의 공격 행위(non kinetic, offensive actions)를 의미하며, 사이버전 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정보전(IW: Information Warfa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보전은 아군의 정보와 정보체계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적의 정보와 정보체계에 영향을 행사하여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사이버전은 정보전의 한 형태로 분류한다. Clemmons, Byard Q. Gary D. Brown(1999), Cyberwarfare : Ways, Warriors and Weapon of Mass Destruction.” Military Review, (September-October), pp. 35-36.

Information Warfare)의 첨단 기법으로 무장한데다 갈수록 조직화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범죄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파장이 큰 사이버 테러의 유형에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해킹(Hacking)을 비롯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투하, 서비스 거부공격(DOS: Denial of Service attack)등이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논리폭탄(Logic Bomb), 웜(Worm), 스니핑(Sniffing), 트로이 목마(Trojan Horses), 스푸핑(Spoofing), 고충격 전자총(Hirfgun), 스팸(Spam), 플레임(Flame),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스토킹(Stalking)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치핑(Chipping), 나노머신(nanomachine), EMP(Electro Magnetic Puls) 폭탄 등은 정보전과 사이버 전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무기들이며, 테러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무기들이다.(안승범, 2002: 125)

4.2.3 특성

이러한 사이버 무기들을 사용한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최근 발생했던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1989년 3월 KGB 요원에 매수되어 미국·유럽·일본의 극비 국가기밀을 소련에 제공한 서독 해커 3명을 구속하였다. 소련은 4년 동안 서방국의 컴퓨터에 접근 극비 기밀문서를 획득 활용하였음.
- ② 1999년 4월 'CIH 대란'은 대만 대학생이 만든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 국내에서만 PC 30만대 고장으로 수리/복구비 20억 원 이상 소요(추정), 전세계 피해액 2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됨.

위의 사례와 같이 사이버 테러리즘의 특징은 탈 테러리즘적 특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종래의 테러리즘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손쉽게, 보다 더 은밀하게, 보다 더 자주, 보다 더 비폭력적으로, 보다 더 죄의식 없이,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의 특징은 ① 인적·경제적 비용이 훨씬 덜 소요되는 저비용성이다. ② 테러리스트 자신의 희생이 거의 없으며 정치적·경제적 목적없이 맹목적으로 타인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등 비정치성과 맹목성을 갖는다. ③ 유형적 폭력행위가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무형적 폭력행위가 수반되며 ④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한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필연성이 존재한다. ⑤ 또한 인적 원인에 의한 컴퓨터 보안상의 취약점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초성이 있으며 ⑥ 사이버 테러리즘이 전쟁 내지 전통적 테러리즘의 예비단계로서의 가능성과 강대국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독점자에 의한 이용 가능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할 수 있다.

4.2.4 대응방안

사이버 테러 전문가들은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테러리스트들은 더욱더 새로운 정보기술(IT)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괴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자,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비태세 중에서도 적의 가상 공격에 대비한 보호시스템 설치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사이버 시대의 국가안보는 군과 민간의 구분이 없으며,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이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을 재정립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백년지대계이다. 아울러 국제적 대응에 부가하여 우리 실정을 고려한 사이버 테러의 양상과 위협·발생 가능성 등을 심층분석하여 총성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용하고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지향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4.3 생화학 테러리즘(Bio - Chemical Terrorism)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서 탄저병에 감염된 사람이 사망한 것은 1976년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최초에는 탄저병 발생을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추가 감염자의 발생으로 인해 미연방수사국(FBI)은 탄저균 우편물 발송을 테러로 규정지었다.(김중관, 2001:33) 이렇게 전세계를 생화학 테러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의 20~30%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다. “만약 ‘이 가난한 자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그것은 살아 있는 지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전염병 연구소장인 마이클 오스터 홀름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생화학 테러는 생물학적 테러와 화학 테러로 구분할 수 있다.

4.3.1 생화학 테러리즘의 개념

생물학과 화학 작용제를 이용한 테러는 일반적인 테러와 달리 복합적으로 실행된다. 먼저 생물학적 테러(Bio Terrorism)는 “잠재적인 사회 붕괴의 의도를 가지고, 바이러스·세균·곰팡이·생물학적

독소를 이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동물·기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강명근:323)

화학 테러는 화학무기를 이용하는 테러로서 화학무기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인원을 살상하거나 초목을 말려 죽이고, 또는 소이 효과나 발열 효과를 내게 되어 있는 모든 무기를 가리킨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애덤자이트·이페리트·포스젠 등과 같은 독가스만을 가리키고, 유독 화학제에는 신경제·발포제·혈액제·질식제 등이 있다.(최진태, 테러리즘 연구실 자료)

4.3.2 수단

생물학적 테러에 사용되는 생물 무기는 먼저 생물체가 매우 치명적이어야 하며 대량으로 쉽게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체는 세균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탄저를 포함하여, 장티푸스·콜레라·페스트·디프테리아 등이 있고, 바이러스 중에는 천연두 외에도 뇌염·유행성 독감·황열 등이 있으며 독소에는 보툴리눔·리신·포도상구균·장내독소B 등이 개발되고 있다.

화학 작용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① 신경작용제는 GA, GB, GD, VX 가 있으며 ② 질식작용제 CG, DP, PS ③ 혈액작용제는 AC, CK, SA ④ 수포작용제는 H, HD, HN-1, HN-2, HN-3, HT, L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작용제는 GB와 VX로서 GB의 155M 포탄 1발이 지상 4.5m에서 폭발할 경우 비방호된 인원이 반경 18m 내에서는 단 한번의 호흡만으로, 반경 46m이내에서는 2-3번만의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일조건에서 VX탄은 반경 20m까지 액체상태로 비산하며 비방호된 인원이 호흡기는 물론 피부에 한방울(0.3-0.4mg)만 묻어도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다.

(일본군사연구, 1990:20)

4.3.3 양상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한 테러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① 인구밀집 지역이나 건물의 환풍구 등에 건조된 분말 상태로 투척하거나 ② 기구나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도심 상공이나 목표 지역에 원격 조정기 등을 이용한 폭파나 살포 방법이 있다. ③ 대형 경기장이나 건물, 항공기 내부 등에 은밀히 보관 유입하여 유기 또는 살포하고 ④ 기타 음식물 오염, 우편물 이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육군본부, 2002:20)

화학 작용제를 사용한 대표적인 테러 양상은 ① 휴대용 화학탄 투척 ② 독가스 제조 살포 ③ 기구 및 경비행기 이용 공중살포 ④ 특히 발생가능성이 높은 유독가스 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으로서는 ㉠ 테러분자에 의한 시설 폭파 ㉡ 탱크로리 절취 후 폭파 ㉢ 유독가스 누출을 통한 오염확산 등을 통해 테러행위를 은폐하거나 위장할 수 있어 관심이 요구되며 ⑤ 기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테러를 시도할 것이다.(육군본부, 2002:24)

4.3.4 생화학 테러리즘의 특성

최근에 시도되었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테러의 사례로는 ① 1984년 2월 미국 오리곤주 델러스 주민에게 라즈니쉬 이교도가 식당 샐러드 판매대에 음식물과 커피·프림·치즈 속에 장티프스균을 살포하여 75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상수원 오염도 2회 시도한 사건과 ② 1995년 3월, 일본 옴진리교도가 사린(GB) 가스를 도쿄 지하철 역에 살포하여 12명이 사망하고 5,500여명이 중독되었는데

이 두 사례는 모두 뉴테러리즘 발생의 징후를 보여준 생화학 테러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생화학 테러의 주요특징은 ① 저렴한 개발 비용,¹⁰⁾ 기술 개발의 용이성이 있으며 쉽게 은닉 잠입하여 살포할 수 있고 초기에 감지가 어렵다. ② 문화·기간시설의 파괴없이 사람만을 공격한다. ③ 재래식 무기와 비교시 대량 살상력이 있다.¹¹⁾ ④ 생화학 테러는 일반적인 테러와 달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복합적으로 실행된다. ⑤ 테러 발생시는 물론 생화학 무기의 사용위협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대중적 불안과 공황상태를 초래한다. ⑥ 생물무기의 살포 원인과 감염 경로의 규명이 어렵고, 노출후 즉각 효과를 나타낸다. 생화학 무기의 사용 위협만으로도 대중적 불안과 공황 상태 등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초래된다.

4.3.5 대응방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1980년대 화학전 공격능력 확보 선언과 1990년대에 이미 생물학 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2,500 ~ 5,000여 톤의 화학무기와 생물학 작용제 13여종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탄저균·천연두·페스트·콜레라·보툴리눔 독소는 이미 무기화한 것으로 예상된다. 생

10) 유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전쟁 무기로 일인 살상에 필요한 평균 비용 계산시 재래식 무기는 2천 달러, 핵·화학 무기는 8백 달러, 생물무기는 1달러가 소요됨.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강력한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할 무기는 생물 무기밖에 없다는 추정을 하기도 함. (US Army Field Manual. 1996)

11) 10g의 탄저균의 위력은 신경 독가스인 사린(Sarin) 1톤의 살상력과 비교된다. 탄저균 3kg을 공중 살포시 미국 워싱턴 인구의 절반을 살상할 수 있으며, 미 RAND 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17kg을 살포시 서울 인구 절반 정도가 희생자가 될 것이라 함.

화학 무기의 공격 위협은 북한의 작용제 사용 의지에 의거 위협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육군본부, 2002: 17)

생화학 테러는 세계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노출된 위험 요인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단으로 강행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정보공유와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경보 및 방독제독장비 개발 및 확보, 통합된 민관군의 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4 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

4.4.1 개념

오늘날 핵 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말미암아 힘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게 되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핵 보유국이 그것을 사용할 시에는, 승리의 이득보다는 그 이상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 상식에 속하지만, 핵 테러의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프랭크(Forrest Frank)는 핵 테러를 “부당한 목적으로 핵 폭발물이나 핵 물질을 허가되지 않은 채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도와, 핵 시설물이나 핵 기지에 대한 공격이나 그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Forrest Frank, 1979: 340)

테러리스트들은 국제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핵무기에 관한 기술정보와 획득정보를 확보하게 되며 핵무기의 거래망 구축과 피난처의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획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오늘날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상에 퍼져있는 핵무기나 핵관련 시설들이 테러리스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핵 테러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테러조직이 핵테러를 실행하는 방법은 ①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장비를 훔치거나 정부 후원자를 통해 반출하던지 지하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② 핵 시설을 공격하여 대규모의 핵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③ 방사능 물질을 고의로 살포(dispersion)하여 인명을 살상시키는 세가지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 테러의 위협은 현실적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 가능성이 낮지만 실제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상황은 핵탄두가 암시장을 통해서 유출되었을 때는 가능한 일이다. 파키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핵무기 암거래 및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대학살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능 공격이다. 방사능 물질을 넣은 더러운 폭탄을 공공장소에서 폭발시켜 오염을 유발하거나 직접 핵시설을 파괴해 방사능을 유출시키는 것이다. 9·11테러가 기상천외의 작전이었던듯이 이와같은 핵테러의 위협이 실재할 수 있다는 가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4.4.2 수단

핵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핵과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핵테러 공격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테러 집단의 핵 물질 수집 및 폭탄제조 ②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더러운 폭탄'(dirty bomb)¹²⁾ 제조 ③ 항

12) '더러운 폭탄'은 핵발전소의 폐연료봉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나 핵관련 연구소 등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TNT와 같은 기존의 폭발물과 결합해 무차별적으로 방사능을 퍼뜨리는 것으로 그 제조방법은 간단하다. '더러운 폭탄'

공기 또는 트럭에 의한 핵 발전소 자살 공격등 세 가지 핵 테러 공격 수단과 유형을 경고하였다. 핵 발전소는 방호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휴대용 통상무기로부터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더러운 폭탄'에 넣을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지구상에 1만여개나 존재하며,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 공장이 각국에 산재되어 있으며,(워싱턴 포스트, 2001. 11. 2) 군축정책 이후 핵폐기물의 안전장치와 처리에 정책적인 관리와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핵 테러의 가능성과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는 핵폭탄을 한 번에 터트릴 수도 있고 플루토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번 사용할 수도 있다. 핵폭탄은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크기는 큰 가방 정도로 제작이 가능하며 선박이나 트럭,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이동도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넥스(conex)폭탄¹³⁾을 주시하며 주문형 핵폭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문형 핵폭탄은 테러조직들이 훔친 핵무기용 우라늄을 이란, 리비아 같은 국가에서 과학자나 공학자들에게 기초적인 폭탄제조를 주문하는 것이다. (신동아, 2002:440)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에 핵테러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제냐'의 문제라고 한 말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USA 투데이(2001. 11. 29)지는 알 카에다 조직이 미국을 겨냥한 핵테러 위협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실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핵가능 시나리오로 ① 테러리스트들의 핵무기 입수 ② 핵물질 입수를 통한 조잡한 형태의 유사 핵폭탄 제조 ③ 미사일기지 점령 등을 포함한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 ④ 더러운 폭탄

의 피해 규모는 폭발물 자체의 파괴력과, 결합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13) 코넥스(conex)폭탄은 수출용 컨테이너에 핵폭탄을 장치한 것이다. 미국 전역의 300개 넘는 항구에서 매시간 약 2,000개의 컨테이너가 하역된다. 이 가운데 2%만이 검사가 되며 대다수 컨테이너는 X-ray 검사장치조차 통과하지 않는다.

제조 등을 제시하였다. 동신문은 빈라덴의 핵무기 입수 주장은 위협용 ‘허풍’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그 영향은 곧바로 공포와 긴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4.3 특성

핵 테러의 사례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완벽한 테러가 체첸반군에 의해서 1995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하였다. 체첸반군은 수개월 전에 병원에서 세습이 들어있는 강통을 노획하여 이 세습탄으로 주말에 모스크바의 한 벼룩시장을 공격한 후 언론에 통보하였다. 부상자는 없었으며 사건은 당국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던 사고였다.(신동아, 2002: 411)

이 사건은 핵 테러가 핵폭발이나 버섯구름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테러리스트들이 방사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핵 테러를 시도할 경우에 그들은 핵 무기의 폭과 보다는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테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로서 사회적으로 공포심과 패닉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핵 테러 위협의 확실성을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핵테러가 방대한 지역에서 대량살상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뉴테러리즘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위협의 수단만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테러는 핵폭탄 테러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테러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 폐기물, 연구소나 의료기관 공급

품, 심지어는 산업용 방사능 물질 제조자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 있으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를 제대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방사능 물질을 고의적으로 살포하는 방법이 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핵발전소와 같은 핵시설을 공격하여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거나 방호벽이 파괴되어 핵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1979년 미국의 TMI 발전소 사고나, 1986년 4월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고¹⁴⁾처럼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4.4.4 대응방안

오늘날 핵무기에 의한 국가간 테러 및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위 '더러운 폭탄'에 의한 테러와 같은 방사능 공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핵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핵 사고의 치명적 위협, 그리고 점증하는 테러위협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어떤 경우든지 핵 테러가 발생한 뒤의 사후조치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핵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전 예방이다. 핵 위협을 본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는 것보다 국제적 협력하에 방사능 물질의 원료를 잘 관리해서 반테러 활동의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대전제는 사전에 방만이 대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것이다.

14)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는 1986년. 4. 26 :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화재와 함께 10일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사고지역 내 건물 및 자연 생태계의 오염으로 30km 거주 주민 13만 5천여명을 이주시켰다. 초기 사망자 31명 중 28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 4년 후 사망자가 300명 정도로 늘어났다. 재산 피해액도 150억 달러로 추산하며 감상선질환, 암, 백혈병 등의 발병율도 50%이상 증가하였다.

5. 결론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온 폭력은 테러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정치적 단위간의 대립적 폭력형태가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정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평화의 개념(R. 아롱)에서 폭력의 정지상태의 끝은 언제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지금도 공포의 정지상태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바로 21세기에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평가받는 2001년 9·11테러였다. 작거나 크거나 균열은 그 나름의 본성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언제쯤 더 큰 균열의 파열음이 들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뉴 테러리즘'은,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사용하는 무기도 대량살상 무기를 포함하여 다양하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무자비한 공격행위를 자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테러리즘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리즘 등이 보다 많은 피해를 유발하기 위해 극적인 연출에 의해 자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명확한 적도 없다.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지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공포는 있으되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테러리즘은 그 자체가 이미 초 국가적인 위협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제는 테러를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현시적인 구호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방위 CEO가 필요한 시기이다. 테러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바

탕으로 어떠한 정치적 대의나 종교적 명분도, 무고한 일반대중을 무차별적으로 대량살상하는 테러의 죄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 테러리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치안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여야 한다. 테러리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민족적·종교적 요소의 세계화 속에서 화합과 신뢰의 풍토를 배양하지 않고는 테러리즘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거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한폭탄의 시계는 쩍각거리고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구광모, 「테러와 국제사회」, 서울:고려원, 1982.
- 국가 안전 기획부, 「테러와 대테러」, 1988.
- 국가 정보원, 「테러리즘」, 1999.
- _____, 「대테러 실무절차」, 2000.
- 국방부, 「화생방 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01.
- 권 촌, 「대 테러 세계대전」, 서울:한림미디어, 2002.
- 권태환, 「정보/전자전 개론」, 국방대학교, 2000.
- 김중관, 「21세기의 전쟁」, 서울:두남, 2001.
- 문광건, 「뉴 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 서울:한국 국방연구원, 2003.
- 신길순, 「전쟁과 평화」, 서울:삼인, 2001.
-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서울:나남신서, 1989.
- 육군 교육사, 「정보전쟁」, 2001.
- 육군본부, 「화생방 테러 위협 및 방호」, 교육참고 9-30, 2002.
- 이남택, 「판도라 상자와 카인의 병기」, 서울:양서각, 2003.
- 이용수, 「우리들을 위한 원자력 이야기」, 서울:도서출판 보고, 1991.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테러리즘」, 서울:대영문화사, 1997.
- 최효찬, 「테러리즘과 미디어」, 서울:커뮤니케이션스북스, 1998.

2) 번역서

- 오오이즈미 코오이치, 「테러의 이해」, 강영수·이민용 역, 서울:백산출판사, 2002.
- 노엄 촘스키, 「불량국가」, 장영준 옮김, 서울:두레, 2001.
- _____, 「촘스키, 9-11」, 박행웅·이중삼 옮김, 서울:김영사, 2001.
- 사뮈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회재 역, 서울:김영사, 2001.
- 사이먼 리브, 「새로운 전쟁」, 황의방·한영탁 옮김, 서울:도서출판 중심, 2001.
- 엔리케차폰, 「테러리즘」, 국가정보원, 1999.
- 엘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 이주행 감역,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4.
- 존클러, 「추악한 전쟁」, 소병일 역, 서울:이지북, 2001.
- 주디스 밀러 외, 「세균 전쟁:생물학 무기와 미국의 극비 전쟁」, 김혜원 옮김, 서울:황금가지, 2002.

- 프레드릭 해커, 『우리시대의 테러리즘』, 임희섭 역, 서울:중앙신서, 1978.
- A. J. 바이카, 『가미가제 특공대』, 이창록·박대련 역, 서울:이상사, 1982.
- James F. Dunningan, 『미래의 전쟁과 디지털 전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총서 89, 2000.
- Paul R. Pillar, 『테러와 미국의 외교정책』, 김열수 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총서 92, 2001.

3) 논문

- 고두화, “국제 테러리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1993.
- 김남철, “최근 테러리즘의 실태 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1994.
- 박성면, “슈퍼 테러리즘과 인질테러 대응책,”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98.
- 신현주,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1998.
- 이성철, “국제 테러리즘의 실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1997.
- 이윤곤,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83.
- 최윤수, “국가지원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1991.

4) 정기 간행물, 잡지, 연구보고서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보도 자료, 2001.
- 「대테러 연구」 「월간중앙」 「비상기획보」 「국방저널」 「월간조선」 「형사정책 연구」 「신동아」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정책 자료시리즈
- 최진태, 테러리즘 연구소 (<http://www.terrorism.or.kr>).
- 한국 원자력 학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최종 분석” 보고서, (2001. 4 24),

5) 주요 일간지

- US 투데이 2001. 11. 29.
- 워싱턴 포스트 2001. 11. 2.
- 동아일보, 2001: 11. 19.
2002: 1. 4. 5. 18. 5. 21. 5. 25. 6. 8.
- 조선일보, 2001: 12. 20.
2002: 3. 21. 5. 22. 6. 12. 6. 13.

2. 외국문헌

- Beres, Louis Rone. *International Terrorism and World Order : The Nuclear Threat, Studies in Nuclear Terrorism*, Norton, Augustus R. and H.Greenberg(eds). Biston G.K.Hall & Co, 1979.
- Clemmons, Byard Q&Gary D.Brown. Cyber warfare : Ways, Warriors and Weapon of Mass Destruction, *Military Review*, (September - October), 1999.
- Frank, Forrest. *Nuclear Terrorism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of Conflict, Study in Nuclear Terrorism* Augustus R.Norton and Martin H.Greenberg(eds) Biston Massachusetts G.K.Hall & Co, 1979.
- Friedlander, Robert A. *The Crime of Kidnapping of Diplomatic Personne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edited by M.Chérit Bassiouni(1986), Vol. I
- Laqueur, Walter. *The Age of Terrorism*, London : Weidenfield and Nicolson, 1987.
- _____ . "Postmodern Terrorism," *Foreign Affairs*, Vol. 75, No. 5. September / October 1996
- Sprinzak, Ehud. *Rational Fanatics, Foreign Policy*. (<http://www.foreignpolicy.com/>), 10, September, 2000.
- U.S.Department of State,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 2001* (<http://www.stalo.ga/s/rls/pgtrpt/2001/pdf/>), 21, May, 2002.
- U.S.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DOD Commission on Beirut International Airport Terrorist Act*. October 23, 1983.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p.115
- Whine, Michael. *The New Terrorism, Antisemitism Worldwide*. (<http://www.ict.org.il/>) January, 2000.

A Study on the Patterns of New Terroris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Conventional Terrorism

Song Jea-Hyoung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Keywords : New Terrorism, Conventional Terrorism,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